

후기 고령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Suicide Attempt of the older Seneior citizen

이 광 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로

Lee gwang-sook

Ph.D. candidate,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고령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여 이들의 경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OO구에 거주하는 자살시도를 경험한 75세 이상 노인 6명을 연구참여자로 의도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Giorgi가 제시한 4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20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해 후기 고령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의 4가지 구성요소는 〈모진 세월의 회한; 죽도록 고생한 모진 인생, 조실부모와 가난의 대물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자식들의 외면, 가족갈등에서 온 깊은 원망〉, 〈절망적이며 처량한 신체; 경제력을 상실과 절망,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절함, 차라리 죽고 싶은 죄책감〉, 〈쓸모없는 무가치한 삶; 아무 쓸모없는 사람, 자녀들 및 신체지기 싫은 강박관념에 괴로움, 자살충동이 일어남〉, 〈참을 수 없는 신체의 고통과 무기력; 죽음과 삶의 두려움, 우울증, 정신병, 치매, 무기력〉,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하루 종일 고립됨, 숨쉬고 있지만 마치 못해 살아감,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나, 하루가 지루함〉, 〈마지막 선택; 세상이 싫어 떠날 것임, 먼저 간 배우자 따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기 고령노인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논하고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실천 현장의 구체적 개입전략, 생명존중문화의 실질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자살은 범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지난 수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자살률이 OECD국가의 평균보다 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2013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연령분포가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났고, 90세 이상의 자살 사망률도 129.1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노인자살에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낙인적 인식, 및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2]. 그러나 노년기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정말로 죽을 의도가 있었으나 방법상의 문제로 실패한 경우일 확률이 높으며, 자살시도의 과거력은 이후 자살시도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노인의 과거 자살시도 경험과 현재의 자살생각 간의 정적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3].

19세기 말 사회학자 뒤르켐(Durkheim)은 '자살은 개인적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회 병리현상으로 지적하며, 자살예방의

대안으로 사회적 결속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Control and Prevention)는 자살은 결코 하나의 요인이나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으로 드러나는 자살시도의 이유가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모든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인생의 완성에 있는 후기 노년기의 고령노인에 주목하여 자살시도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급증하는 후기 고령노인의 자살 현상에 주목하여 자살을 시도했던 생존 노인의 자살시도 경험 현상을 심층면담하여 실증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그 의미와 구조를 본질적으로 이해 하고자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특히 급증하는 후기 고령노인의 자살 현상에 주목하여 자살시도 경험의 현상을 심층면담 하여 탐색함으로써 그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후기 고령노인의 자살시도경험은 어떠한 것인가?"이다.

Ⅲ. 연구방법

1.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후기고령노인의 자살시도 현상의 토대가 먼저 폭로되지 않으면 현상에 대해 무엇이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진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시도 현상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경험의 본질을 중심으로 현상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홀로 사는 자살시도 경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의도표집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참여자별 초기 1회 전화 상담과 2-4회의 참여자의 자택에서 개별 당 1회 면담시간은 6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면담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진술을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Giorgi의 4단계의 분석절차를 따라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본을 읽고, 연구자 자신의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며, 각 각의 필사본 속에 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의 단위를 구분하는 단계로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의도를 가지고 참여자들의 말로 표현된 진술문을 구분하였다(신경림,2004). 6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61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했다. 세번째, 대상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로 가장 적합한 용어로 현상을 재기술한 후, 네번째,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로 노인자살시도 경험의 일반적인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원자료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읽으며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20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표.1)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 결과, 후기고령노인의 자살시도 경험 현상의 본질과 의미가 나타났으며, 후기고령노인은 각 개인의 환경에서 복합적인 상실의 요인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의 위험이 감소되기 보다 자살시도력이 누적되

는 결과로 자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노인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복지 실천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전문가적 개입으로 요구됨을 논의하였다.

■ 참고 문헌 ■

- [1] 자료: OECD. STAT, Health Status Data(2014. 9. 추출),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4개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
- [2] Duberstein, Conwell, Cox, Podgorski, Glaser, & Caine, 1995, 이수애, 이정미: 2002, 권혁남, 2011
- [3] Szanto, Gldengers, Mulsant, Brown, Alexopoulos, & Reynokls, 2002; Blazer, 1991; 정은숙, 2005; Shneidman, 1969; Wolf, 1970; 노인자살 위기개입, pp.15, 학지사
- [4] Harris & Barraclough, 1994 ; 서화정, 2005.
- [5] MacaMahon & Pugh, 1985; 김형수(2000), 노인과 자살, 한국노인복지학회, 10, 25-45